

사설

문화유산 넘어 '정신유산'

—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의의

한국인에게 있어서 근대화는 곧 서양을 뜻했다. 표어(標語)인즉 '東道西器' 이었으나 압도적인 서양의 물질문명 앞에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할 겨를도 없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일제 시대의 교육제도는 교과 내용이 혹 시나 민족적인 긍지를 갖게 할 수도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심한 경계를 받았다.

국보 제83호 미륵보살반가상은 한국인의 혼을 나타내는 구상물이다. 1976년 동경 경도를 포함하여 일본 중요 도시에서 열린 '한국미술 5000년전'은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큰 감명을 준 것은 바로 미륵반가상이었다. 일본 국보 제1호는 미륵반가상과 꼭 닮은 것이다. 일본인은 그것이 한국산이라고 분명히 밝히고는 있지 않다. 그들의 국보 제1호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속 알은 일본의 국수주의적 감정에 역겨웠던 것도 같다. 그러나 그 유래가 한국산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그 재료가 한국산 소나무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두개의 반가상유상이 같은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확신할 정도로 닮았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K. 아스퍼스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적인 것 속 박을 초월한 인간의 가장 청순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영원한 모습을 가진 모습의 상징이다"고 격찬한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예술성을 지니는 이 미륵반가상을 단순한 민족적인 차원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자랑한다. 진정한 선의 마음이 인류적 차원으로 승화된 이 불상은 종교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처럼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간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민족적 차원에서 배려되지 못했다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외국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는 GNP 1만불 시대라고 한다. "산은 높지만 해서 귀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문화유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어떻게 해서 일등 국민일 수가 있는가!

만시지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현대불교신문이 주동이 되어 전국 중·고등학교에 이 불상모형을 보급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현재까지 중·고등학교의 미술 시간에 데생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대부분이 화합·로마시대의 작품에 대한 석고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일 이 운동이 널리 보급된다면 미술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위대한 불교미술이 모두 그러하듯이 미륵반가상은 단순한 미술품은 아니다. 이 작가는 분명히 독실한 불교도였을 것이다. 원목에 글을 한번 때려 때려 열부하며 합장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 그 속에는 한국인의 열이 담겨 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종교재단이 설립됐을 경우 편견으로 접수를 사양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점은 데생용 미륵반가상 모형은 불상이 아닌 한국미의 응집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K. 아스퍼스의 "인간의 가장 청순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영원한 상징"이라는 말을 다시 상기하자. 여기에는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는 깊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리나라 경지가 있다. 비록 석고라 할지라도 미륵반가상의 모습을 우리나라 젊은이에게 자비와 예술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미술품은 서양 미술의 우수성을 피부로 느끼며 살기와 감상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급용 반가상은 정교하게 만든 원형과 같은 모형이면 더 좋을 것이다. 미륵반가상뿐 아니라 금강역사, 석굴암부조상 등도 일반에 보급하면 좋은 훌륭한 데생용이고 감상용이다.

입시에 우리 문화재인 반가상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교뿐 아니라 일반 미술학원에서 취급되는 등 널리 보급되어야 가능하다. 데생용으로는 전체보다 얼굴 표정이 살아날 수 있게 상반신을 확대한 모형보급이 어떻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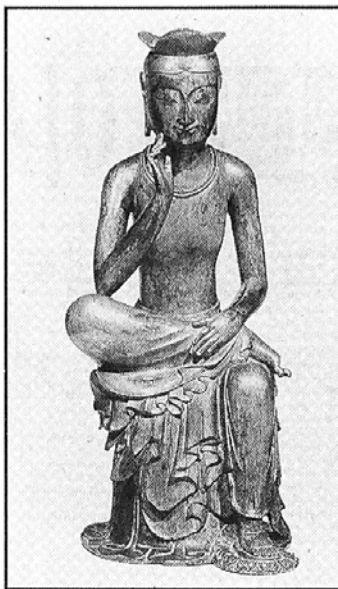
열린마당

데생용 미륵반가상

실기·감상 '일석이조'... 금강역사 보급도

**조승환** <동국대 교수·미술학과장> 중·고교에 미륵반가상 모형을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피부로 느끼며 살기와 감상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급용 반가상은 정교하게 만든 원형과 같은 모형이면 더 좋을 것이다. 미륵반가상뿐 아니라 금강역사, 석굴암부조상 등도 일반에 보급하면 좋은 훌륭한 데생용이고 감상용이다.

입시에 우리 문화재인 반가상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교뿐 아니라 일반 미술학원에서 취급되는 등 널리 보급되어야 가능하다. 데생용으로는 전체보다 얼굴 표정이 살아날 수 있게 상반신을 확대한 모형보급이 어떻까 한다.



종교초월 '우리 혼 심기'에 동참을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왔다. 물론 타종교인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야말로 박수를 치고 환영할만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반가상을 단순히 불교문화재로 치부해 버리기 쉽지만 우리 고대문화의 주류가 불교미술이요, 1천6백여년간 우리 문화에 뿌리박혀 있는 '우리 혼'임을 되새기게 하는 '우리 혼'의 전통 문화유산인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학생들의 데생용으로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반가

청동원형 보급으로 문화의식 배양

**최인수** <서울대 교수·조소과장> 들의 지혜가 반영된 것이다. 간결하게 생략된 표현을 통해 오히려 전달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천년을 뛰어넘는 그윽하고 온화한 미소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 해부학적 표현능력을 배양시키는 기초 과정이 데생이라고 볼 때 미륵반가상은 그 대상으로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전 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자는 의미에서 보급 운동이 일어나다면 사회적으로 퍼뜨리면 해부학적으로는 서양조각에 비해 정밀도가 결여돼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는 우리 선조

현대불교신문이 3월20일 대령 비서실에 건의하신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석고모형 보급"이 교육부로 이첩되어와 이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반가상을 데생용 석고모형으로 축소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보급, 학생들이 한국적 미의식을 인식하고 사유의 폭을 넓히는 교육효과를 도모하려는 귀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성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보급은 하신되 미술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 교육부장관

서양식 미술교육 보완하는 계기로

**김리나** <홍익대 교수·미술사연구회장> 주름을 제외한 얼굴과 상반신 부위의 굴곡이 크지 않다는 점이 다. 학생들의 데생연습시에 명암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다른 불교조형품을 선정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를테면 경주 석굴암에서 출토돼 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인 금강역사상의 두상(頭像)은 음영이 뚜렷해 데생용으로 적합할 듯하다.

이무튼 타종교와의 마찰이 일지 않게 유의하면서 전통미와 민족정서를 담은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급한다면 서구위주의 미술교육 현장에 한국미를 심는 신선한 문

**현대만평**

진작 생각하셨어야죠!

미술 고재

**목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올해도 또 절에서 불이 났다. 한 사찰도 아니고 하루밤에 서울 삼성암과 인근의 보원정사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걸러 22일 새벽에는 두 사찰의 중간 지점에 있는 화계사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계사의 경우 빨리 발견 조기진압을 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한다고 했으나 누가 보아도 분명한 방화다. 화계사에서는 방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너를 뿌린 흔적과 인화물을 담은 용기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랬을까.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찰은 불안하다. 매년 초파일 무렵이면 크고 작은 해불사건이 연례행사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파일 해불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지만 90년 5월 개곡을 앞둔 불교방송 법당에 이교도로 보이

은의자의 자백까지 받았으나 불 중화보를 못해 무혐의로 처리됐다. 1년후 제주 탐라교회 신도가 관음사와 대각사를 전소시켰다. 경찰은 그를 '정신질환자'라고 밝혔다.

사찰건물을 파괴하고 불상을 넘어뜨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심

**삼보 훼손죄**

는 과한 2명이 침입하여 불상과 기지재를 파괴했을 때 불교계는 울분을 금치 못했다. 방화사건만 해도 한 두 건이 아니다. 초파일 무렵은 아니지만 문화재로 꼽히는 금산사 대적광전이 이교도의 방화로 86년 소실됐다. 이 사건은

**새싹별 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효도시기 놓치지 말라**

자식은 부모때문에 해안 달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거운 나라.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공양하고 효순하여 공경하되 그 시기 놓치지 말라.

(증언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주지 자성  
TEL. (0565)82-3004

**음악회 공연 안내**

총출연진 : 합창단 200명 (봉은사 남녀 혼성 4부 합창단), 예불 출연 스님 1백여명, KBS국악관현악단, 기타 출연진 총400여명

- 제1부 : 도량석, 종성, 범고, 운판, 목어, 대종, 현다, 예불, 승무, 바라춤, 탐돌이(문현 스님 외 슬기대 스님 다수)
- 제2부 : 합창 (지휘: 유동열, 반주: KBS 국악관현악단) 독창(테너 최조중, 소프라노 김현숙)
- 제3부 : 유명 불자 국악인 초청 공연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주지 무상  
전화 : (02) 511-6070/4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제**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는 만민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음악제를 봉행합니다.

KB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봉축음악제는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4일 KBS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봉은사 사중만의 행사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를 대표하여 불교음악의 진수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이 봉축음악제에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기 2540년 4월 일 봉은사 대중 일동 합창

◀ 일시 : 불기 2540년 5월 8일 저녁 7시  
◀ 장소 : 여의도 KBS홀  
◀ 주최 : 한국방송공사 KBS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 협찬 : (주) 대우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